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4px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반 박</div>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9.14.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 장 수 (02-2100-2620)	담 당 자	오 형 록 사무관 (02-2100-2625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목 : “윤석열특보, 신용정보협회장 단수후보로”기사 관련
주요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.
(머니투데이 9.14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)

1. 기사내용

- ☐ 머니투데이는 9.14일 「윤석열특보, 신용정보협회장 단수후보로」 제하 기사에서
- i)신용정보협회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, ii)내년부터 관련 위탁산업 예산도 금융위로부터 받게 되며, iii)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로 가입하게 된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☐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는 채권추심회사 23개사, 신용정보회사(CB) 5개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(마이데이터) 1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☐ 신용정보협회는 회원사 중 상당수가 채권추심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등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,
-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.
 - 아울러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는 임의 가입 형태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同 협회에 가입할 의무도 없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